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821226-0180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표 컨설턴트 임영민
 광주지사 0622228-3222

The Kwangju Ilbo

“2순환도로 市가 직접 운영”

“민자구간 年155억씩 보전...재정압박 따라 인수 검토”

박광태 광주시장 본보 인터뷰 ▶5면

광주시가 연간(지난해 기준) 150억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고 시민들이 회당 900원~1천원씩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직접 인수해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광주시는 당초 순환도로를 건설할 당시 민자 투자 기업과 광주시가 협약이 광주시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시민과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민자도로 운영회사에 통행료 수입보전 기간과 재정보전금 지급 액수 등을 담은 협약 개정을 요구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광주시가 민자도로를 인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같은 계획은 제2순환도로 4개 구간 중 민자로 건설된 '두암IC~소태IC(1구간중 5.63km)'구간과 '효덕IC~풍암지구(3구간중 3.5km)'구간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1년에 무려 155억원 달해 광주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순환도로 민자도로의 재정보전금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면서 “민자도로 운영회사들과 재정보전금 규모에 대해 재협상을 실시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을 인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에는 금리가 11%대였지만 현재 금융기관의 이자율은 5%대로 격차가 너무 커 광주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중 '두암IC~소태IC(5.63km)'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지난 2001년~2004년까지 평균 61억원이며, 2005년에는 85억원에 달했다. 2004년말 개통된 3구간 중 '효덕IC~풍암지구(3.5km)'의 2005년 재정보전금은 70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제2순환도로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155억원이나 됐다. 2순환도로 1구간 민자투자액은 1천731억원이며, 3구간은 1천79억원이다.

시는 원활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구간중 한 곳 또는 두 구간 모두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두 구간을 모두를 인수할 경우 가장작을 하더라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시는 금리가 계약 당시 11%대에서 5%대로 주저앉은 점과 매년 15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감안하면 빛을 내더라도 인수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순환도로 운영상황을 봐가며 통행료를 낮추거나 경영이 정상화되면 무료 통행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현재 계약대로라면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오는 2028년에, 3구간은 2034년에 운영권이 시로 넘어온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암세포 촉진 유전자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암 세포의 증식, 전이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발견해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동수 박사 연구팀은 'E2-EPF' 유비퀴틴 캐리어라는 단백질(UCP)이 암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이를 생쥐 종양 모델에서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임 박사팀의 연구논문은 정초록(20·여) 박사를 주저자로, 국제 의학저널인 '네이처 메디신' 인터넷판 3일자에 게재됐다.



임동수 박사 정초록 박사

“UCP단백질 증식 조절” 임동수 박사팀 첫 규명 암 치료제 개발 청신호

연구팀은 면역 형광기법과 생쥐 종양모델을 이용해 간암 발생과 관련 있는 UCP가 암억제 단백질인 VHL의 분해를 유도, 암 조직 주변에 혈관을 만들어 암 세포 증식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암을 증식시킨다는 원리를 규명했다.

그동안 UCP는 세포 내 기능 및 암 진행과 상관성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임 박사 연구팀에 의해 암 억제 단백질인 DHL을 조절한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UCP가 암을 비롯해 대장암, 유방암 등 원발성 암뿐 아니라 전이 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2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광주일보사 주최 제51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에서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신명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무용·음악·국악 등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자 20여팀이 출연,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관련기사 8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상속재산 50%는 배우자 몫

법무부, 민법 개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상속된다. 지금까지 자녀가 2명이면 자녀들과 배우자 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 1:1:1.5로 적용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50%는 무조건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3인인 경우에는 33.3%, 4인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현행상속분과 개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교

자녀 1인	현행 상속분		개정 상속분	
	배우자	자녀	배우자	자녀
1인	60%	40%	50%	50%
2인	42.9%	57.1% (28.6%)	50%	50% (25%)
3인	33.3%	66.7% (22.2%)	50%	50% (16.7%)
4인	27.2%	72.8% (18.2%)	50%	50% (12.5%)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돼 있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만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 중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하게 된다.

개정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

든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자녀 등 공동상속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상속재산은 종전 60%에서 50%로 줄어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의 무효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월드컵 4강 경기

<5일>	독일	이탈리아
	도르트문트 04:00/KBS2·MBC·KBC	

<6일>	포르투갈	프랑스
	리스본 04:00/KBS2·MBC·KBC	

스코어 보드 (8강)

독일	0 : 0	아르헨티나
(승부차기)	4 : 2	
이탈리아	3 : 0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0 : 0	잉글랜드
(승부차기)	3 : 1	
프랑스	1 : 0	브라질

빠르면 내일 3개부처 개각

경제 권오규·교육 김병준·예산처 장병완씨 확실

국세청장 전군표씨 유력

인사위원장도 교체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3일 재경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부 정부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주초에 경제 및 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

처 장관 등 교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는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장병완 차관의 기용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번 인사 발표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내정자도 발표될 예정이며, 전군표 국세청 차장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무위원 인사와는 별도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권오룡 행정부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중앙인사위원장은 이번주초 단행될 장관 교체 인사때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래 재임했기 때문에 중앙인사위원장 교체 문제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교체시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루우유로 성장균형을 잡아라!

좋은 성분들만 **쑥쑥**~ 자녀의 키가 **쑥쑥**~

자녀의 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우유로 시작해보세요! 성장기에 꼭 필요한 성분은 물론, 두뇌에 좋은 DHA까지 담았습니다! 하루의 차이가 키의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우유 100ml 기준:
 칼슘 200mg
 DHA 50mg

이 성질을 촉진시키는 OCT-11

맞춤수유를 돕기 위한 배아인 D3와 CPP

우유 자체에서 추출된 락토페린

두뇌에 좋은 DHA

• 하루우유 인공배아기, 락토페린을 대량 선별하게 직접 천문배 뜨는 기술 • 하루의 차이가 키의 차이를 만듭니다! • 077-7900 • www.yakult.co.kr • 유제품인 어린이의 필수식품입니다!